



21일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열린 삼성 하우젠 K리그 2007 6강 플레이오프 울산 현대와 대전 시티즌의 경기에서 울산의 이상호가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 "포항 나와라"

프로축구 6강 플레이오프

울산 현대가 대전 시티즌의 연승 돌풍을 잠재우고 2년 만의 정상 탈환 꿈을 향해 한 걸음 전진했다. 울산은 21일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삼성 하우젠 K-리그 2007 6강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에서 전·후반 이상호, 박동혁의 연속골로 대전을 2-0으로 완파했다. 울산은 2005년 10월 이후 대전전 7경기 무패(5승2무)로 전적 관계를 다시 한번 확고했고, 대전은 팀 창단 이후 최대 연승 행진을 '5'에서 끝냈다.

이상호·박동혁 골...대전에 2-0 완승

울산은 28일 같은 장소에서 지난 20일 경남을 승부차기 점진 끝에 꺾고 올라온 포항 스틸러스와 준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승자는 31일 수원 원정을 떠나 29일 수원 삼성과 챔피언 결정전 진출전을 가린다. 이날 경기는 벼랑끝 단판 승부를 너무 의식한 듯 30분 넘도록 슈팅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대전은 태널슨-슈바를 앞에 놓고 고종수가 공격을 지휘하는 삼각 편대를 세우고, 우성움을 깊숙이 박은 울산은 올림피아드팀 시리아 원정에서 돌아온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이상호, 오장은을 죄다 투입하는 강수를 썼다. 전반 30분이 넘어서자 대전의 선제 공격이 시작됐다. 전반 33분 브라질리아의 프리킥을 수비수 김형일이 다이빙 헤딩슛으로 연결했고 울산 수문장 김영광의 가슴팍에 안겼다. 하지만 골문을 열어젖힌 쪽은 잔뜩 응크리고 있던 울산. 해설사로는 원정 피로가 채 풀리지 않은 올림피아대표 이상호가 나섰다. 이상호는 전반 39분 페널티지역 오른쪽 외곽에서 김영삼이 크로스를 툭 차올라자 위치를 잡았다. 단신(173cm)인 이상호 옆엔 대전 수비수가 없었다. 이상호의 머리에 정확히 명중한 볼은 몸을 날린 대전 골키퍼 최은성의 손끝을 피해 곧바로 왼쪽 구석으로 파고들어 세차게 한 번 그물을 출렁였다. 골장 반격에 나선 대전은 전반 인제리타 임 슈바가 헤딩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으나 부심의 오프사이드 깃발이 먼저 올라갔다. 후반 24분에는 세트플레이에 가담한 울산 수비수 박동혁의 머리로 세기골이 터졌다. 현영민이 왼쪽 코너킥을 올라자 우성움이 헤딩으로 연결했고 골지역 오른쪽에 도사리고 있던 박동혁이 다이빙 헤딩슛으로 시원하게 네트를 갈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인천 무어 덩크슛 21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서울 삼성과 인천 전자랜드의 경기에서 인천의 무어가 덩크슛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인천 전자랜드가 92-87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이천수 데뷔전 '팀 공격에 활력'

"이동국 재계약 걱정 안해" 사우스게이트 감독 밝혀

후반 교체 투입-30여분 출전

네덜란드 프로축구 리그(에레디비지)에 진출한 이천수(26)가 소속 팀 페예노르트 입단 51일 만에 교체선수로서 투입돼 공식 데뷔전을 치렀다. 이천수는 21일 네덜란드 로테르담 테쿠플 경기장에서 치러진 2007~2008 시즌 정규리그 8라운드 엑셀시오르와 홈 경기에서 후반 15분 니키 호프스 대신 그라운드에 들어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30여분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페예노르트는 후반 32분 히오버나 판 브롱크호르스트의 결승골을 앞세워 1-0 승리를 거두 7승1패(승점 21)로 에인트호번(6승

2무·승점 20)에 앞서 정규리그 선두를 지켰다. 한편 페예노르트의 마르웨이크 감독은 이천수에 대해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마르웨이크 감독은 이날 홈 경기 가 끝난 직후 공영방송 NOS와 인터뷰에서 "올 시즌 8경기 가운데 4경기 공격이 풀리지 않은 가장 지루했던 경기였지만 이천수 투입으로 분위기가 반전돼 팀 공격이 살아나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천수를 투입한 배경에 대해서는 "경기시작 전에 15분 정도 뛰게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후반 15분 엑셀시오르의 밀집 수비를 풀 수 있는 해법으로 이천수를 선택한 것이 주효했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잉글랜드 프로축구 미들즈브러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데뷔골을 푼 마른 이동국(28)과 재계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21일(한국시간) 새벽 2007~2008시즌 정규리그 10차전 첼시와 홈 경기(0-2패)를 마친 뒤 인터뷰에서 "툰키어 산티 대인에 톱 크레독을 공격수로 교체투입한 것은 짧은 선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동국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내년 여름 구단과 계약이 끝나는 이동국에 대해 "정규리그 휴식기에 들어가서 앞서 석 달 동안 이동국을 지켜볼 예정이지만 잘 할 것이라 믿고 있어서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신뢰감을 숨기지 않았다.

1초 승부

경주국제마라톤 '박빙의 레이스' 코멘트, 2위 1초 차로 제치고 우승

국내 마라톤 코스에서 보기 드문 박빙의 레이스가 펼쳐졌다. 케냐의 에드윈 코멘(25)은 21일 오전 경주 황성공원 시민운동장~경주 시내 순환 코스에서 열린 동아일보 2007 경주국제마라톤대회 남자부 풀코스(42.195km) 레이스에서 2시간19분44초에 끝낸, 찰스 세로니 키비아트(32·케냐, 2시간19분45초)를 1초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국내 코스에서 열린 국제마라톤대회에서 '초를 다투는 승부'가 펼쳐진 것은 2003년 서울국제마라톤에서 차세대 에이스 지영준(코오롱)이 거트 타이스(남아프리카공화국)에게 1초 차로 뒤져 2위에 그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8일 미국 시카고마라톤에서는 1위 패트리 이부티(케냐)가 2위 조우아드 가리브(모로코)와 2시간11분11초로 '똥지 타임'을 끊은 뒤 사전판독 끝에 0.5초 차로 우승한 적이 있다. 2시간18분대 선수인 코멘은 2시간 6분32초로 이번 대회 참가 선수 중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진 우승 후보 키비아트와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여 경기장 트랙에 간발의 차로 앞서 끝낸 뒤 5m 차이를 결승선을 먼저 끊었다. 국내 선수 중에는 신정훈(구미시청)이 2시간18분00초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순위는 19위. 여자부에서는 '나이를 거꾸로 먹는 마라토너' 윤선숙(35·강원도청)이 생애 10번째 풀코스 마라톤 우승이라는 족적을 남겼다. 윤선숙은 2시간35분53초에 결승선을 통과해 김지은(태안군청·2시간37분25초)을 여유있게 제쳤다.

- 22일(월)
- 2007 PGA 프라이스 일렉트로닉스 오픈 FR(05 : 00·SBS골프·SBS스포츠)
- 2007 메이저리그 AL 플레이오프 시리즈 7차전(클리블랜드 : 보스턴)(09 : 00·X-ports)
- 전국대학배구 종합선수권대회(인하대 : 한양대)(조선대 : 경기대)(13 : 50·SBS스포츠)
- 2007 유소년 축구대회(14 : 00·MBC ESPN)
- 2007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두산 : SK)(17 : 55·KBS2)

23일(화)
-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뉴캐슬 : 토트넘)(04 : 00·MBC ESPN)

Real estate advertisements including sections for '대인동상업부동산', '무등공인중개사',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한일지도판매(주)', and '부자되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Each section lists various properties,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